



7. 다음과 같이 사진 전시회의 초대장을 쓰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모시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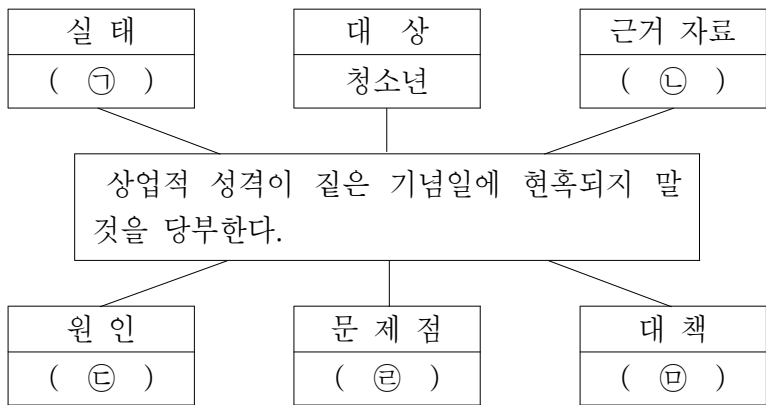
저희의 작은 결실을 한 자리에 모아 '고향'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 잊혀졌던 고향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_\_\_\_\_ [A]

일시 : ○월 ○일  
장소 : ○○고등학교 강당  
사진반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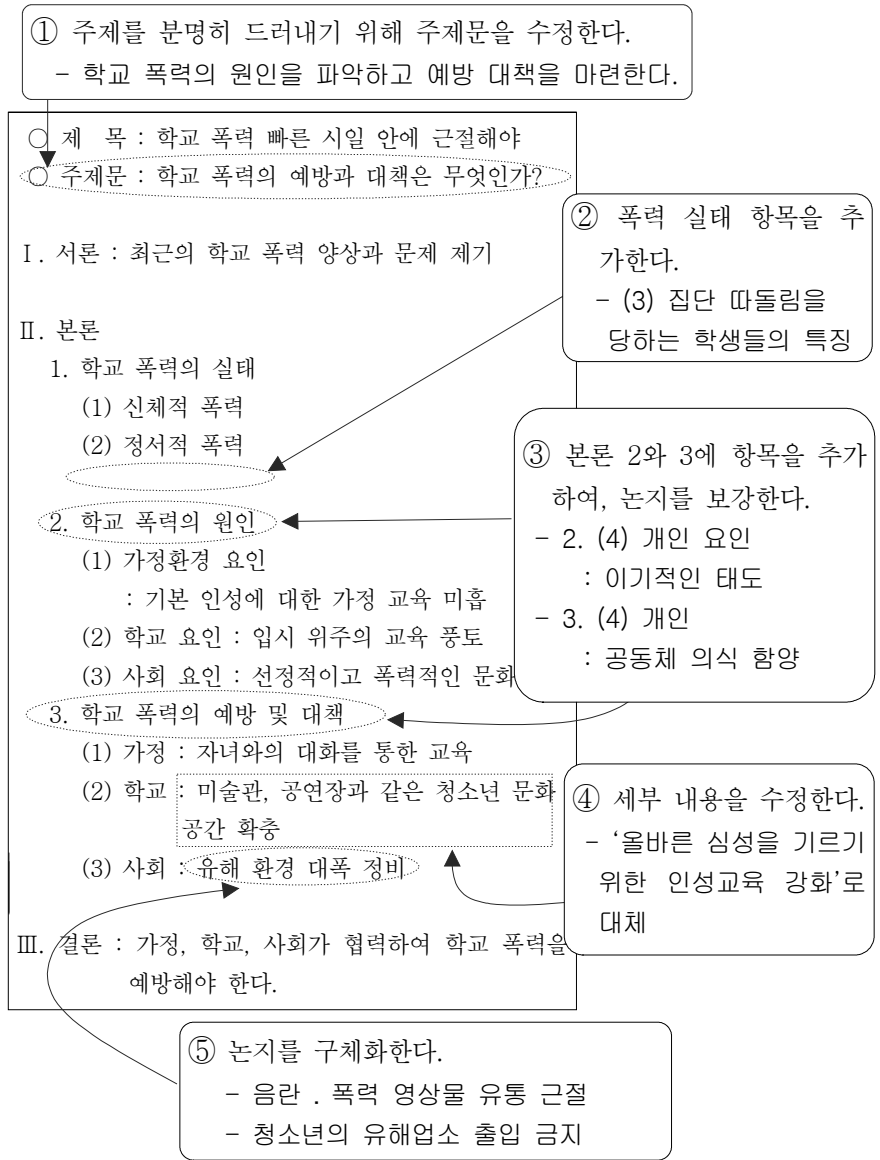
- ① 바쁜 일상을 떠나 추억의 공간에서 잠시 어린 시절을 만나 보세요.
- ② 옛이야기 소근대는, 초가집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 하나 따가지고 가세요.
- ③ 외양간 가득 풍기는 여물 냄새와 시리도록 깨끗한 순백의 정취를 느껴 보세요.
- ④ 어머니 품처럼 따스하고, 어미 소 울음처럼 한가로운 농촌 마을을 느껴 보세요.
- ⑤ 사라져가는 우리 멋의 세계, 신비의 세계가 만화경처럼 펼쳐지는 시간을 만나 보세요.

8.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워 글을 쓰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각 업체들이 만들어낸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로즈데이' 등 각종 기념일을 사례로 제시한다.
- ② ㉡ : 특정 기념일 몇 달 전부터 물량 확보를 위한 상인들의 사재기 경쟁이 치열하다는 신문 기사를 인용한다.
- ③ ㉢ : '~데이'는 이익 창출을 노린 기업의 판매 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한다.
- ④ ㉣ : 특정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그로 인해 과소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 ⑤ ㉤ : 우리의 전통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기념일 제정을 촉구한다.

9.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개요 수정을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진도 아리랑'의 일부분이다. <보기>의 [조건]을 충족시켜 완성한 것은?

<보 기>

문경 새재는 웬 고개이고 구비야 구비야 눈물이 난다  
(후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줄마다 후렴구 반복)  
만나니 반가우나 이별을 어이해 이별을 허라거든 왜 만났던고  
날 다려 가거라 날 다려 가거라 무정한 우리님아 날 다려  
가거라  
( )

[조건] .내용의 통일성을 갖출 것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드러낼 것

- ① 배 떠난 부두엔 연기만 나고 님 떠난 방 안엔 향내만 난다
- ② 저기 가는 저 기력아 말 물어 보자 우리네 같길어 어드메뇨
- ③ 높은 봉 상상봉 외로 선 소나무 외롭다 허여도 나보담은 낮네
- ④ 산천초목은 달이 달달 변해도 우리들의 먹은 마음 변치를 말자
- ⑤ 날 다려 갈 때는 사정도 많더니 날 다려다 놓고는 잔말도 많네

11.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원시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평등하게 생활하였다. 비록 ㉠성과 연령에 따른 계층 간의 분화는 있었지만, 계급에 따른 지배와 피지배라는 불평등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운명 공동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 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부인에 의해 ㉣죽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보복을 해야 했다. 원시 시대 사람들의 이 같은 집단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원시 시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주로 동일한 혈연을 매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동의 조상신을 숭배하며 일체감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 ① ㉠ : 문장의 의미가 명료해지도록 ‘성에 따른 남녀 간의 분화와 연령에 따른 계층 간의 분화’로 고치자.
- ② ㉡ : 문장의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로 인식하였다’로 고치자.
- ③ ㉢ : 앞, 뒤 문장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꾸자.
- ④ ㉣ : 의미가 중복되므로 ‘죽거나 사상을 당하면’으로 고치자.
- ⑤ ㉤ : 단어의 쓰임이 잘못되었으므로 ‘형성’으로 바꾸자.

12. <보기>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 30 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3.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니]으로 발음한다.

↓

① 냇가로 가기 위해 숲 속 샛길을 걷는다. ② 뱃속에서 들 [내까] [뱃속]

리는 꼬르륵 소리. 힘들어도 아랫니와 ③ 윗니를 짝 물고 [윗니]

④ 나뭇가지의 벽을 헤쳐 나가자. ⑤ 나뭇잎이 계속 뺨을 할 [나뭇가지] [나뭇잎]

킨다. 어디까지 가야 하나?

13. <보기>의 설명에 대한 적절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우리말에서는 말하는 이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주로 용언의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단정, ㉡확인, ㉢감탄, ㉣사실의 전달, ㉤사실의 추정’ 등 다양한 느낌이 전달된다.

‘철수가 공부를 한다.’는 문장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 ① ㉠ : 철수는 공부를 하고 있어.
- ② ㉡ : 철수가 공부를 하고 있네.
- ③ ㉢ : 철수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 ④ ㉣ : 철수는 공부를 하고 있겠지.
- ⑤ ㉤ : 철수는 공부를 하고 있을 거야.

14.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바른 것은?

- ① [그 사람 탓에 성공하였다. [1점]  
세금이 오른 덕분에 매출이 줄었다.]
- ② [이 강의 넓이는 50m나 된다.  
교실보다 운동장의 너비가 훨씬 넓다.]
- ③ [내 뭇은 네 뭇의 갑절이다.  
이 일은 어제 한 일보다 몇 곱절 힘이 든다.]
- ④ [판매 실적이 날로 갱신되고 있다.  
전세 계약을 경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 ⑤ [일손이 모자라 배추를 발뺨기로 팔아 넘겼다.  
손바닥만한 발뺨기에 농작물을 심어 보았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의 소년 시절은 은(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 길을 어머니의 상여(喪輿)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江)가로 내려갔다.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몹서리쳤다. 그런 날은 향유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앉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 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

(나) 봄이 오든 아침, 서울 어느 쪼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B] 내 그림자는 담배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 거릴 게다.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 운동주, 「사랑스런 추억」 -

(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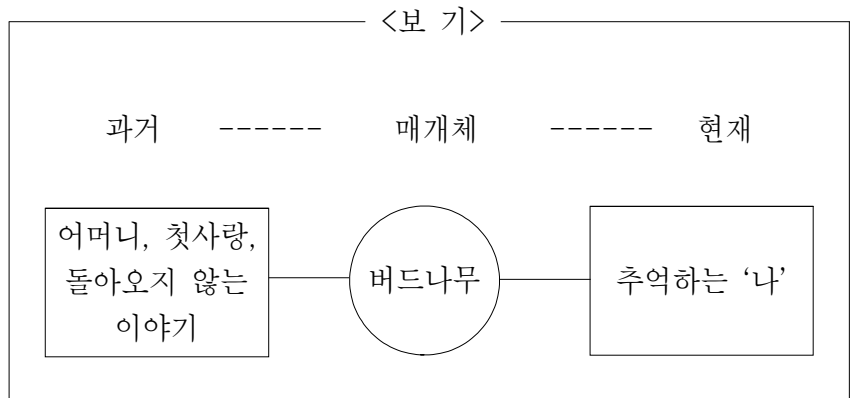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 현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고달픈 삶의 역정을 반어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자유로운 연상을 통하여 이미지를 확산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공간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인간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16. (가)에 대한 감상 중, 내재적 접근 방법에서 벗어난 것은?

- ① ‘길’이라는 제재에 담긴 함축적 의미는 무엇일까?
- ②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라는 시구에 담긴 시인의 첫사랑은 어떤 것일까?
- ③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에 담긴 시적 화자의 정서는 무엇일까?
- ④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
- ⑤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에 담긴 감각적 표현의 효과는 무엇일까?

17. [A]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나),(다)에서 ‘버드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 담배
- ② ㉡ 기차
- ③ ㉢ 교외
- ④ ㉣ 찬밥
- ⑤ ㉤ 빛소리

18. 밑줄 친 두 대상의 관계가 [B]의 ‘나 : 비둘기’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여승은 함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늪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 백석, ‘여승’
- ②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純粹)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 ③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나,/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늪는 산새처럼 날아 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1’
- ④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⑤ 아 우리들 태초의 생명의 아름다운 분신으로 여기 태어나/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이 피어오르는 한떨기 영혼 이여.  
- 조지훈, ‘풀잎 단장(斷章)’

19. (다)를 짓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화자 설정
  - ① 어린 시절의 ‘나’와 성인이 된 뒤의 ‘나’를 동시에 설정하여, 두 자아의 괴리감을 보여준다.
- ▶ 시상 전개
  - ② 엄마의 고달픈 삶과 빈 방에 남겨진 어린 화자의 외로움을 서사적 구조로 드러낸다.
- ▶ 표현 방법
  - ③ 유사한 문장의 반복과 변조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시적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감각적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한다.
  - ⑤ 명사형 어미로 끝을 맺음으로써 마지막 행에 시상을 집중시킨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95년 오존층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크루첸 교수는 지난 2백여 년을 가리켜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최소한 1만 년이 넘는 긴 지질학적 시간대에 사용하는 이런 용어를 불과 2백 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적용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무언가 엄청난 일을 벌여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지구 온난화는 인류에 의해 초래된 지구 환경 문제의 하나이다. 이는 기후 시스템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만의 순수한 과학적 과제를 넘어, 최근에는 전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에게까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구의 온도는 과거에도 변화해왔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 15만 년 동안 지구는 약 6℃의 기온 변화를 보였다. 이에 비해 최근의 0.6℃ 상승은 불과 2백 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변화 속도가 너무도 빠르다.

1957년 키일링 교수가 대기 중 탄산가스 농도 측정을 시작하였는데, ㉡키일링 곡선이라 불리는 이 측정 자료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는 지구가 식물의 활동으로 여름철에는 CO<sub>2</sub>를 들이마시고, 겨울철이면 CO<sub>2</sub>를 대기 중으로 내뿜는 1년 주기의 거대한 숨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대기 중의 CO<sub>2</sub> 농도가 연평균 0.5%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키일링 곡선이 보여주는 탄산가스 농도 증가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탄산가스 농도는 10만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200ppmv\*에서 280ppmv 사이의 변화를 반복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산업혁명 이후 80ppmv 이상의 탄산가스 농도 증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에 너무 큰 변화임이 분명하다.

대기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온실효과가 있는

데, 이러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의 대기 중 농도가 최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 때문에 이 시기를 크루첸 교수는 ‘인류세’라 부르자고 한 것이다. 온실기체의 농도 증가는 대기 중에 머무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며, 결국은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나 폭우 등의 이상 기후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며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발생 빈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에 적어도 9~88c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해수면이 수십 cm 증가했을 때, 저지대가 많은 나라에서 겪을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된다. 더구나 상승된 해수면에 조석(潮汐)이나 태풍이 함께 작용할 때 그 파괴 효과가 가중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기후 모형들이 예측하는 또 하나의 결과는 온난화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온도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는 점이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식물 생태계 등이 입을 타격이 심각하리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지구 온난화가 예측하는 미래의 지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 추가 더욱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ppmv(part per million by volume)  
: 공기 분자 1백만 개 중에 섞여 있는 탄산가스 분자의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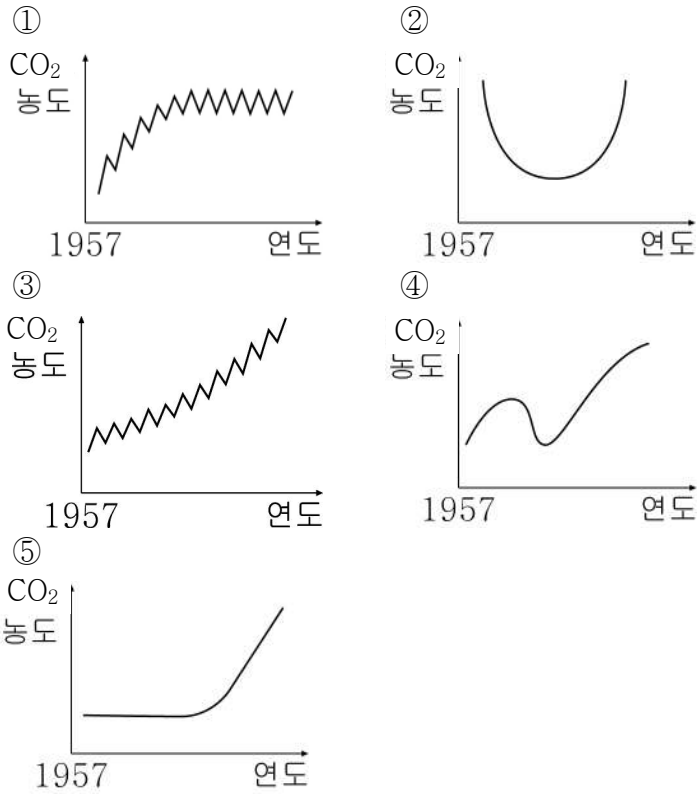
20. 위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류가 자연을 지배했기 때문에
- ② 우주와 자연의 내적 법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 ③ 인류가 지닌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되었기 때문에
- ④ 인류에 의해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 ⑤ 기계 문명의 발달로 시·공간적 한계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22. ㉠을 적절하게 나타낸 그래프는? [1점]



23. 위 글을 읽고 문제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글쓰기를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론 : 지구 온난화 현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해야지. ①  
 본론  
 A. 지구 온난화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B.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술해야지. ②  
 C.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지.  
   •국가 : 대중 교통망 확충,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 ③  
   •기업 : 대체 에너지 개발 노력, 고효율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④  
   •개인 : 에너지 절약 생활화, 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시 및 규제 ⑤  
 결론 : 바람직한 지구 환경을 위하여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해야지.

[24~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어	山僧貪月色
병 속에 물과 달을 함께 길었네.	并汲一瓶中
절에 돌아와 비로소 깨달았으리.	到寺方應覺
병을 기울이면 달도 따라 비게 되는 것을.	瓶傾月亦空

-이규보, 「영정중월(詠井中月)」-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퍼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다) 새벽달보다는 초승달이 나에게서 한결 친할 수 있다. 개나리, 복숭아, 살구꽃, 벚꽃들이 어우러질 무렵의 초승달이나 으스름달이란, 그 연연하고 맑은 봄밤의 혼령(魂靈) 같은 것 이라고나 할까. 소식(蘇軾)의 ‘봄 저녁 한 시각은 천 냥에 값 하나니, 꽃에는 맑은 향기, 달에는 그늘(春宵一刻值千金 花有清香月有陰)’이라고 한 시구(詩句) 그대로다. 어느 것이 달빛인지 어느 것이 꽃빛인지 분간할 수도 없이 서로 어리고 서려 있는 봄밤의 정취란 참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한스러움을 느끼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단들 초승달로 보름달을 겨룰 수 있으랴. 그것은 안 되리라. 마침 어우러져 피어 있는 개나리, 복숭아, 벚꽃들이 아니라면, 그 연한 빛깔과 맑은 향기가 아니라면, 그 보드라운 숨결 같은 미풍이 아니라면, 초승달 혼자서야 무슨 그리워력을 나타낼 수 있으랴. 그렇다면 이미 여건(與件)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초승달이 아닌가.

보름달은 이와 달라 벚꽃, 살구꽃이 어우러진 봄밤이나, 녹음과 물로 덮인 여름밤이나, 만산에 수를 놓은 가을밤이나, 천지가 눈에 싸인 겨울밤이나, 그 어느 때고 그 어디서고 ㉠거의 여건을 타지 않는다. 아무것도 따로 마련된 것이 없어도 된다.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물이면 물, 수풀이면 수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족하다. 산도 물도 수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도 좋다. 머리 위에 보름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고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고 황홀하고 슬프고 유감(有感)한 것이다.

보름달은 온밤 있어 또한 좋다. 초승달은 저녁에만, 그믐달은 새벽에만 잠깐씩 비치다 말지만, 보름달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로 하여금 온밤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름달은 온밤을 짝 차게 지켜줄 뿐 아니라, 제 자신 한쪽 귀도 떨어지지 않고, 한쪽 모서리도 이울지 않은 짝 찬 얼굴인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 보름달같이 짝 차고 온전히 둥근 눈동자의 소유자를 나는 좋아한다. 보름달같이 맑고 둥근 눈동자가 눈 한가운데 그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나는 좋다. ( ㉠ )

- 김동리, 「보름달」-

24. (가)~(다)를 함께 묶어 책으로 만들었을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 그 고독한 삶
- ② 자연, 삶, 그리고 나
- ③ 자연과 하나가 되어
- ④ 자연, 그 풍류에 젖어
- ⑤ 현실, 이상, 그리고 자연

25. <보기>는 (가)의 ‘스님’이 벗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 ) 안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정각에게

저녁 지을 물을 길러 샘터로 갔다네. 물에 비친 달이 너무 아름다워 물을 길어갈 생각도 잊고 달빛에 빠졌다네. ‘이 아름다운 달을 절에 가져가서 두고두고 바라보아야지.’ 달도 함께 걸어 왔네. 절에 돌아온 후, 바빠서 깜박 잊고 있었지. ‘아, 내가 가져온 달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달을 찾으러 갔더니 동그런 바가지가 기울어 달 또한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네.  
( )

- ①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내가 부끄러웠네.
- ② 해야 할 일을 잊고 사는 내 자신을 발견했네.
- ③ 탐욕의 허망함을 깨달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네.
- ④ 자네가 올 때쯤 다시 한 번 달을 담으러 가야겠네.
- ⑤ 나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귀한 것을 잃고 말았다네.

26. (나)와 발상 및 표현이 유사한 것은? [1점]

- ① 더우면 곳피고 치우면 닢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 모 다  
구천(九天)에 불휘 고 줄을 글로 야 아노라 - 윤선도
- ② 삼동(三冬)에 비웃 닢고 암혈(巖穴)에 눈비 마자  
구름 벗뉘도 적이 업건마  
서산(西山)에 지다 니 눈물겨워 노라 - 조식
- ③ 이화우(梨花雨) 흘 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한 닢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각 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만 오락가락 노매 - 계량
- ④ 동지(冬至)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블 아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닢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 ⑤ 청산(靑山)은 옛데 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 옛데 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 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 이항

27. (나)의 화자가 쓴 일기이다. (나)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은?

○○월 ○○일  
유성에 다녀오다.

①나는 여행길에서 나무를 만났다. ②그 나무는 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무를 통해 ③밖으로만 향하던 인식이 안으로 향하게 되었다. 아, 나는 ④나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비로소 ⑤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8.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달밤의 정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고 있다.
- ② 상승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달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달을 초월적 존재로 형상화하여 신비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그리고 있다.
- ⑤ 생동감 있는 어휘를 구사하여 봄밤의 정취를 돋우고 있다.

29.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과 거리를 둔다.
- ② 주위를 무색하게 만든다.
- ③ 그 아름다움이 바뀌게 된다.
- ④ 절대적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 ⑤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30. ㉡에 들어갈 내용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1점]

- ① 큰 눈을 가져 겁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 ②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 ③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몸이 민첩하여, 능히 막힘이 없는 재기발랄한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 ④ 충기 있는 눈동자로 사물을 직시하며, 현명하게 처신(處身)하는 실속 있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 ⑤ 시선이 옆으로 비껴가지 않고, 아무런 사기(邪氣)도 없이 정면을 지그시 바라보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3월 그믐날 ‘나’는 시골 본가로부터 ‘조모주 병환 위독’이라는 전보를 받고 급히 시골로 내려간다.

㉠할머니의 병환이 어젯밤에는 매우 위중해서 모두 밤새움을 한 일, 누구누구 자손을 찾던 일, 그 중에 내 이름도 부르던 일, 지금은 한결 돌린 일…… 온갖 것을 중모는 나에게 알려 주었다.

나는 그날 밤을 누울락았을락, ( ㉠ ) 할머니 곁에서 밝혔다. 모였던 자손들이 제각기 돌아간 뒤에도 중모만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불교의 독신자인 그는 잠 오는 눈을 비비기도 하고 기침으로 목청을 가다듬기도 하면서 밤새도록 염불을 그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적적한 새벽녘에 해로가(薤露歌)와 같이 처량히 들렸다. 나는 새삼스럽게 그 효심의 지극함과 그 정성의 놀라움에 탄복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방이라야 단지 셋밖에 없는데, 안방은 어머니, 형수들이 점령하고 뜰 아랫방 하나 있는 것은 아버지, 삼촌, 당숙들에게 빼앗긴 우리 젊은이패 - 사.육촌 형제들은 밤이 되어도 단 한 시간을 눈 붙일 곳이 없었다. 이웃집에 누누이 교섭한 끝에 방 한 칸을 빌려서 ( ㉡ ) 조금씩 쉬기로 하였다. 이 짧은 휴식이나마 곰비임비 교란되었나니 그것은 십분들이로 집에서 불러들이는 까닭이다. 아버지와 삼촌네들의 큰 심부름 잔심부름도 적지 않았지만 할머니 곁에 혼자 앉은 중모의 꾸준한 명령일 때가 많았다. 더욱이 밤새 한 시에나 두 시에나 간신히 잠을 들어 꿀보다 더 단잠이 온몸에 나른하게 퍼진 새벽녘에 우리는 ( ㉢ )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 병환이 이렇듯 위중하신데 너희는 태평치고 잠을 잔단 말이냐.”

우리가 건넌방에 들어서면 그는 다짜고짜로 야단을 쳤다. 그 중에도 가장 나이 어리고 만만한 내가 이 꾸중받이가 되었다. 인정사정 없는 그의 태도가 불쾌는 하였지만 도덕적 우월을 빼앗긴 우리는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었다.

“다들 뭐란 말이냐. 나는 한 달이나 밤을 새웠다. 며칠들이나 된다고.”

줄음 오는 눈을 비비는 우리를 보고 그는 자랑스럽게 또 이런 꾸중도 하였다.

‘놀라운 효성을 부리는 게 도무지 우리 야단칠 밀천을 장만하는 게로구나.’ 나는 속으로 꿀꺽꿀꺽하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한번은 또 그의 명령으로 우리는 건넌방에 모여들었다. 그 방문을 열어젖히었는데 문지방 위에 할머니의 지팡이가 놓이고 그 밑에 또 신으시던 신이 놓여 있었다. 방 안 할머니의 머리맡에는 다라니가 걸려 있다.

‘할머니가 운명을 하시나 보다!’

우리는 번개같이 이런 생각을 하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들었다. 그는 답을 그르렁그르렁거리며 ( ㉣ ) 누워 있었다. 중모는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며 그의 귀에 들이대고 울음소리로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을 구슬프게 부르짖고 있었다.

한동안 엄숙한 긴장이 여기 있었다. 모두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십 분! 이십 분! 환자의 신상에는 아무 별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잠이 드신 모양입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이 긴장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리고 중모를 향하여,

㉤“잠 주무시게스리 염불을 고만 피십시오.”  
하고 나가 버렸다. 그 뒤를 따라 뻑뻑하게 들어섰던 자손들이 하나씩 들쭉 헤어졌다. <중략>

그 이튿날이 무사히 지나가자 한의(韓醫)의 무지를 비소(誹笑)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환자의 수명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시간 아는 데 들어서는 양의(洋醫)가 나오리라는 우리 젊은 패의 주장에 의하여 XX의원 원장으로 있는 천엽 의학사(千葉醫學士)를 불러오게 되었다. 그는 진찰한 결과에 다른 증세만 겹치지 않으면 이삼 주일은 무려(無慮)하리라 하였다.

“그래, 그저 그럴거야. 아직 괜찮으신데 백주에 서둘고 야단을 했지.”

하고 일이 바쁜 백형은 그날 밤으로 떠나갔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오니까 할머니 곁을 떠난 적 없는 중모가 마당에서 한가롭게 할머니의 뒤 흘린 바지를 빨고 있다가 옷은 낮으로 우리를 맞으며,

“할머니 오늘 아침에는 혼자 일어나셨다. 시방 진지를 잡수시고 계시다. 어서 들어가 봐어라.”

나는 뛰어 들어갔다. 자부와 손부의 신기해 여기는 시선을 받으면서 할머니는 정말 진지를 잡숫고 있었다. 나는 빙글빙글 웃으며,

“할머니,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할머니는 합죽한 입을 오물오물하여 막 떠 넣은 밥 알맹이를 삼키고,

“내가 혼자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나긴. 흉악한 놈들, 암만 일으켜 달라니 어데 일으켜 주어야지. 인제 나 혼자라도 일어난다.”

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어제 의원이 왔지요. 인제 할머니가 곧 나오신대요.”

“정말 낫겠다고 하든, 응?”

하고 검버섯 핀 주름을 밀며 ( ㉥ ) 웃음의 그림자가 오래간만에 그의 볼을 스쳤다. 나의 눈엔 어쩐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차로 모였던 자손들은 제각기 흩어졌다. 나도 그날 밤에 서울로 올라왔다.

┌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말장게 갠 하늘은 구름 한 [A] 점도 없고 아른아른한 아지랑이가 그 하늘거리는 김 울이

└ 로 봄 비단을 짜내는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나는 깨끗하게 춘복(春服)을 차리고 친구 몇몇과 우이동 앵화(櫻花)구경을 막 나가려던 때이었다. 이때에 뜻 아니한 전보 한 장이 도착하였다.

‘오전 3시 조모주 별세’  
- 현진건, 「할머니의 죽음」 -

3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내면 의식의 흐름을 포착하여 심리를 드러낸다.
② 작중 인물의 관점을 취하여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한다.
③ 사건의 전모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④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⑤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과거의 일을 삽화처럼 제시하고 있다.

36. ㉠의 의미를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분석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중모	가족들
①	효성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사건
②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계기	돈독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사건
③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되찾는 계기	전근대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사건
④	집안일의 결정권을 쥐게 되는 계기	인간의 이기적 면모를 드러내는 사건
⑤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는 계기	일상 생활을 방해하는 번거로운 사건

37. ㉠~㉣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깰락졸락                      ② ㉡ 번차레로
- ③ ㉢ 꼬들리어                      ④ ㉣ 혼혼(昏昏)히
- ⑤ ㉤ 처연(淒然)한

38.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자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예를 갖추어 공손한 태도를 보여준다.
- ② 능청스럽게 웃으며 속마음을 감추어보인다.
- ③ 상대를 노려보며 분노의 심정을 표출한다.
- ④ 못마땅한 어조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도록 한다.
- ⑤ 몹시 화를 내며 상대를 질책하는 표정으로 연기한다.

39. [A]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됨을 보여준다.
- ③ 인물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 ④ 인물이 처한 상황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킨다.
- ⑤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중충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며느리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다림질을 하고 있다.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건네 온다.  
 “아가, 할미가 업어 줄까?”  
 이 말은 할미가 젖을 빠는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가 뿌리는 밖에 널려 있는 빨래를 빨리 거뒀더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당부인 것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통찰력으로 알아듣고 빨래를 거뒀다.

뒷밭에 가 남새 뜯어 국거리 마련하라, 저녁밥 지으라, 애들 돌보라, 일손이 바쁜 며느리는 시어머니 담배 피우고 있는 방 앞에서 강아지 배를 차 깨갱거리게 하거나 마루에서 노는 닭들에게 양칼스레 욕을 퍼붓는다. 시어머니는 ‘옹거니.’ 통찰로 그 뜻을 알아차리고 바구니 들고 남새 밭에 가면 되건만, ‘그렇지 않아도 좀 쉬었다가 뒷밭에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 배를 차…… 어디 가나 보라.’고 버티고 있으면 며느리는 업힌 아이 보고,  
 “니 어머니는 무슨 팔자로 손이 세 개 달려도 모자라냐.”고 혼잣말을 한다.

[A]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지피는 장작불의 조잡함에서, 며느리가 먹인 시어미 삼베고쟁이의 칼날같이 뺏센 풀에서 며느리의 반항을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 며느리가 업고 있는 아이의 울음의 질과 시간과 때와 경우를 판단하여 며느리가 아이 엉덩이를 꼬집어 울린 건지 아닌지를 통찰로 감식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꼬집어 울리는 아이의 울음이나 배를 차서 울리는 강아지의 울음은 불만이 차 있는 며느리의 절규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플라스틱이라 소리가 나지 않지만 바가지 요란하게 긁는 것이, 통찰이란 미디어를 통한 강력한 발언인 것이다. 한국인은 이렇게 눈이나 귀가 입보다 말을 많이 한다. 즉, 한국인의 언어 사용은 말없는 ‘통찰의 의사 소통’이 ‘말로 하는 의사 소통’의 분량보다 한결 많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나) 한국어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단수.복수의 구분이나 성(性)의 구분,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구분도 그리 철저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애매한 표현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별로 불편이나 곤란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대화 현장에서 이런 불투명성을 고도로 발달한 우리의 눈치, 코치가 보완해 주기 때문일까?

‘시원섭섭하다’라는 말이 그 사람이 떠나서 후련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몹시 아쉽다는 표현인지 분명치 않다. 시큼달콤, 들락날락, 붉으락푸르락, 오락가락 등도 비뚤뚤처럼 표현의 맛을 알아대기가 쉽지 않다.

우리말의 ‘예.아니오’의 답변을 비롯하여 ‘그래요’라든가 ‘그렇지 뭐’라는 긍정적 의사 표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꺼림칙한 구석이 있다. “집에 갈래?”라는 물음과 “집에 안 갈래?”라는 물음이 상황에 따라 동의어일 수 있다.

우리말은 좋게 말하여 완곡어법이 발달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곡어법이란 본의(本意)를 흐려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은 표현법이라 할 수는 없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히 밝히기를 꺼리는, 이러한 언어 표현은 불투명한 표현을 낳을 수도 있다. “예스냐 노우냐” 또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하는 결단적인 언어 표현은 서양인의 것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글쎄요, 생각 좀 해봅시다.” 식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견지할 뿐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어는 ‘너무나 인간적인 언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적인 것까지는 좋으나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현대와 같은 산업화.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언어의 명료성’을, (나)는 ‘언어의 암시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② (가)는 우리말의 특수성을 ‘부정적’으로,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③ (가)는 ‘비언어적 표현’에, (나)는 ‘언어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④ (가)는 우리말을 ‘입의 언어’에, (나)는 ‘눈과 귀의 언어’에 비유하고 있다.
- ⑤ (가)는 의사 소통 과정에서 ‘메시지의 전달’을, (나)는 ‘언어 상황’을 중시한다.

41. <보기>의 상황에 (가), (나)의 밑줄 친 내용을 적용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앞부분의 줄거리** : 열일곱 살 난 ‘나’는 점순이네 소작인의 아들이다. 우리 집 수탉은 점순네 수탉에게 물어뜯기어 피를 흘리기가 일쑤이다. 점순이는 그것을 좋아해서인지 곧잘 싸움을 붙이곤 한다.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갓지 남 울타리 엮는데 쟁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중략>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췌근췌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 김유정, 「동백꽃」

- ① ‘나’는 ‘통찰의 의사 소통’에 익숙하지 않다.
- ② ‘나’는 주로 ‘결단적인 언어 표현’을 하고 있다.
- ③ ‘닭싸움’이나 ‘감자’는 ‘통찰이란 미디어’에 해당한다.
- ④ 점순이는 ‘완곡어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점순이의 의도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42. (가)의 글쓴이가 (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사 소통 과정에서 본의(本意)만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 ②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우리 민족만의 문제일까?
- ③ 분명한 의사 표현만이 바람직한 언어 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
- ④ 언어 사용을 지나치게 문화적 논리로 풀어가는 것은 아닐까?
- ⑤ 완곡어법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소통 방식이므로 계속 살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

43. [A]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1점]

- ① 염화 시중(拈華示衆)이라고, 마음으로 알아야지.
- ② 상부 상조(相扶相助)라고, 서로 돕고 살면 좋을 것을.
- ③ 역지 사지(易地思之)라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지.
- ④ 풍수 지탄(風樹之嘆)이라고, 후회 없도록 잘해 드려야지.
- ⑤ 순망 치한(脣亡齒寒)이라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게지.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최척은 어려서부터 뜻이 크고 기개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정상사 집에서 글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창 틈으로 쪽지가 날아들었다. 그 쪽지는 정상사 집에 머물고 있는 과부 심씨의 딸 옥영이 보낸 것이었다. 최척은 옥영에게 답서를 써 주었고 옥영은 다시 최척에게 아내로 맞아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최척은 편지를 다 읽은 후 마음이 더욱 기뻐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아뢰어 말했다.

“들으니, 과부 심씨가 서울에서 내려와 정씨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결혼할 나이인데다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성격이 온순하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불초한 자식을 위해 시험삼아 정상사에게 구혼해 보십시오. 만약 이 일을 늦추시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구혼하게 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우리가 먼저 구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저들은 귀족으로 멀리 타향에 와서 잠시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유한 집에 혼처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은 본래부터 가난하니 저들이 우리의 구혼을 기꺼워할 리가 없다.”

최척이 거듭 간청하여 말했다.

“먼저 물어 보십시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에 ㉠**최척의 아버지가** 가서 물으니, 상사가 말했다.

“나의 표매\*가 서울에서 피난을 와 궁박하게 내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녀의 외동딸이 자색이 뛰어나고 재주와 행실이 보통이 아니라네. 그래서 내가 바야흐로 신랑감을 구해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하네. 진실로 자네의 아들이 훌륭한 사윗감이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자네가 가난한 것이 걱정일세. 그러나 내가 마땅히 누이와 상의를 해서 다시 알려주세.”

최숙이 집으로 돌아와 이러한 말을 전하자, 최척은 초조한 모습으로 상사의 회답이 오기를 고대하였다. 상사가 심씨에게 최숙이 구혼한 사실을 이야기하니, 심씨가 거절하며 말했다.

“저는 온 집안이 유리(遊離)되어 의탁할 곳 없이 외롭고도 어렵사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반드시 부유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어 의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랑이 비록 어질다고는 하나 그 집안이 매우 가난하다고들 하니,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날 밤 옥영이 어머니 곁으로 가서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리니,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숨기지 말고 털어놓아라.”

옥영이 얼굴을 붉히고 말을 못하다가 억지로 입을 열어 말했다.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사위를 고르시되 반드시 부유한 사람만을 구하려고 하시니,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집안이 부유하고 사윗감마저 어질다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집안은 비록 먹을 것이 풍족하더라도 사윗감이 어질지 못하다면, 그 집안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는데 제가 그를 남편으로 섬긴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고 한들 그가 능히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생을 몰래 살펴보니,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우리 아저씨께 와서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배웁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결코 경박하거나 방탕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배필로 삼을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물며 가난한 것은 선비의 본분이요, 몇몇하지 못한 재물은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청컨대 최생으로 마음을 정하시어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

[A] 은 처녀가 제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제 일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꺼려하여 침묵을 지킨 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용렬한 사람에게 시집가서 일생을 그르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깨어진 시루는 다시 완전하게 하기 어려우며, 물을 들인 실은 다시 회개 할 수 없듯이 일이란 한 번 그르치면 서제막급(噬臍莫及)\*입니다. 하물며 지금 제 처지는 다른 사람과 달라 집에는 엄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왜적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진실로 참되고 믿음직스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두 모녀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운명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지금은 차라리 안씨가 결혼을 요청하고 서매가 스스로 낭군을 선택한 것을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속마음을 숨긴 채 단지 남의 입만 바라보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배필을 가만히 놓아 두어야 하겠습니까?”

○옥영의 모친은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정공에게 아뢰어 말했다. “제가 밤에 다시 생각해 보니, 최씨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의 아들이 준수하며 빈부(貧富)는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구혼하기보다는 차라리 최랑을 사위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공이 말했다.

“누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일이 성사되도록 권하

리라. 최랑이 비록 한미한 선비이나 됴됨이가 옥처럼 훌륭하여 서울에서도 이 같은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을 게다. 저 사람이 만약 학업을 완수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것이니, 어찌 숙맥(菽麥)과 같은 사람이겠는가?”

- 조위한, 「최척전」 -

\* 표매 : 부모의 자매 및 모친의 형제 등과 친척 관계인 종매  
\* 서제막급(噬臍莫及) :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

44. 위 글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 ① 전쟁이라는 배경이 사실성을 더해 주고 있다.
- ② 인물들의 가치관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③ 계층 간의 갈등이 사건 전개 중심이 되고 있다.
- ④ 역사적 전환기를 살아가는 민중의 애환이 나타나 있다.
- ⑤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45. ㉠과 ㉡의 공통적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을 존중하며 비판 없이 따른다.
- ② 자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③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한다.
- ④ 자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뜻을 받아준다.
- ⑤ 시대적 난관을 혼인으로 해소하려 한다.

46. <보기>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옥영’의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父生母育(부생모육) 辛苦(신고) 야 이 내 몸 길러 낼 제, 公侯配匹(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군자호구) 願(원) 더니, 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월하)의 緣分(연분) 로 長安遊俠(장안유협) 輕薄子(경박자) 치 만나 잇서 當時(당시)의 用心(용심) 기 살어름 디되는 듯…… (하략)

- ① 부모의 뜻을 따르는 당신의 지극한 효성에 감탄했어요.
- ② 때가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 ③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니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 ④ 고정관념을 깨며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세요.
- ⑤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그대의 운명이니 어찌겠어요. 천생연분이 라고 생각하세요.

47. [A]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상대가 모르는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 ② 적절한 이유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여 억지를 부리고 있다.
- ④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낸다.
- ⑤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과 그림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만화의 기본 기능은 ‘칸’이라는 공간 속에 어떤 이미지를 넣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지를 ‘칸’이라는 틀에 넣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포착된 사건들을 부분 부분으로 나눈 후 연속적으로 배열해야 한다. 이 부분을 틀 또는 칸으로 부르는데, 영화의 프레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영화의 각 프레임 단위는 동일한 공간인 스크린에 연속적으로 투사되지만, 만화의 각 칸은 각기 다른 공간을 차지한다. 칸으로 구획된 공간이 곧 영화에서의 시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글조를 짜 맞추고, 말풍선과 지문을 끼워 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을 통해 만화는 특유의 시간과 공간을 연출하는 ‘연속 예술’인 것이다. 칸을 구성하는 작업은 이처럼 테크놀로지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만화에서는 칸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다이아그램이며 중요한 ㉢아이콘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화의 칸들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절된 순간들의 ㉤스타카토 리듬을 보여주게 되며, 독자는 완결성 연상 효과에 의해 이 분절된 순간들을 연결시켜 지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시간이 정지된 예술에서 어떻게 시간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을까? 현대 만화는 초창기부터, ‘정적인 매체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하는 문제를 고민했다. 만화에서는 물체가 바로 조금 전, 앞의 장소에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그림에 이야기의 ‘연속적 기능’을 갖게 하였다. 그림 속의 인물이 다음 순간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전상(前像, pre-image)이라 하면, 전상은 잔상(殘像, after-image)을 예비하는 형태인 것이다. 어떤 순간, 하나의 물체는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움직임은 정지되어 있는 순간들의 연속이라 볼 수 있다. ‘순간적인 시간’을 선택하여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들은 처음에는 형상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나중에는 하나의 칸에서도 소리나 동작선을 통해 움직임이나 시간의 흐름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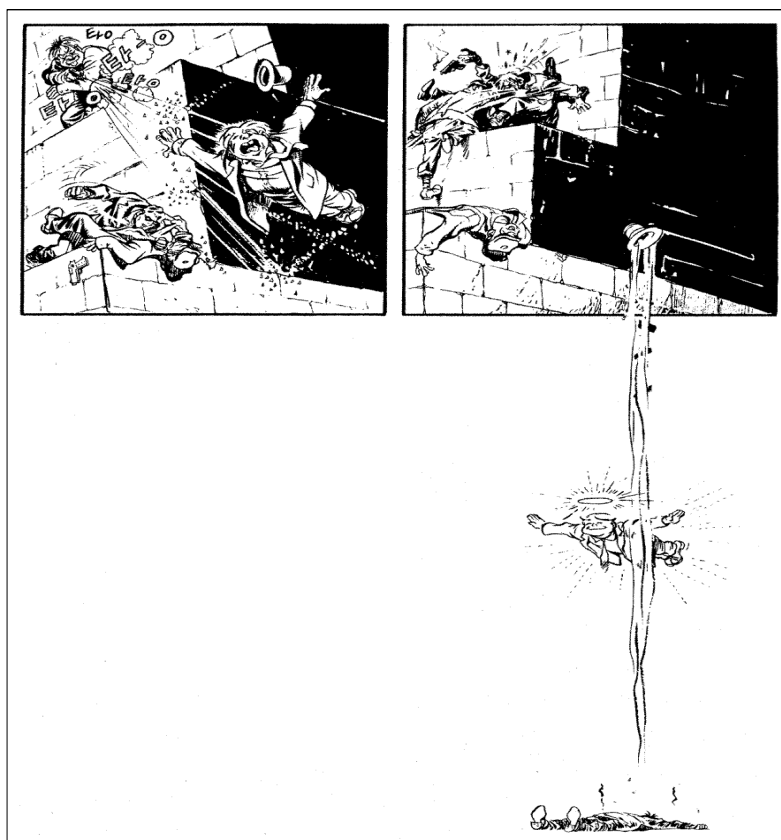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칸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과 개념, 행위, 그리고 위치와 장소를 담기 위해서는 공간 속을 움직이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칸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작가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행동의 흐름을 자의적으로 해체한 다음 고정된 장면들로 분할하고, 그것들을 틀이나 칸에 집어넣는다. 어떤 행위를 칸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행동 반경을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독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하고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만화의 칸은 시간과 공간을 결정하는 일종의 표지로서 ㉦저마다의 칸을 부수고 틀을 해체하여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역동적인 생명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칸과 틀에 의한 ‘시공간의 흐름’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칸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독자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8.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만화의 예술적 조건
- ② 만화와 영화의 차이점
- ③ 만화의 칸이 지니는 기능
- ④ 만화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 ⑤ 만화에서의 움직임 구현 방법

49. 위 글을 바탕으로 다음 만화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인물들의 싸움 장면을 칸에 집어넣어 상징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총을 맞은 인물의 전상과 잔상을 통해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총에 맞고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각각의 칸에서 보여주고 있다.
- ④ 총소리나 총알·인물의 동작선을 통해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행동의 흐름을 세 칸으로 분할하고 이의 연속 배열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50. ㉦의 논리적 전제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만화는 특별한 테크놀로지에 의해 칸을 구성한다.
- ② 만화는 글과 그림의 두 매체를 이용한 시각 예술이다.
- ③ 만화는 말풍선을 통해 언어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만화는 독자들의 완결성 연상을 통해 칸을 연결·통합한다.
- ⑤ 만화는 하나의 물체는 하나의 장소에만 존재한다는 일회성을 중시한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종전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웹상에서는 즉각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관련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품 사양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훨씬 풍부하고 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실제 사용상의 특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공급자에 대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게 되었다. 게다가 공동 구매를 통하여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용의 감소이다. 부품의 구매에서부터 생산, 출하, 판매까지 전 단계가 자동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된다. 그 결과는 대부분 구매, 재고, 물류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난다. 정보 기술은 이렇게 절약을 통한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하고 있다. 기존의 소매업은 점포의 위치가 매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으나,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는 지리적 여건을 뛰어넘고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 단계가 해체됨을 경험하고 있다.

(다) 디지털 정보 처리의 특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표준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정보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동일한 정보 처리 방법(기술 표준)에 따라야만 의미가 통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는 열위에 있지만 표준을 장악하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정보의 압축이나 재생 방법, 정보 기록 매체 산업의 기술 표준, 사무용 오피스웨어의 보급 등 광범한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 상호 작용의 경제적 특성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의 효용이 자신의 소비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참여에 의해서도 증가하는 ㉡망외부성(網外部性)에 기초하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인터넷의 한 특정 공간으로 유인하는 능력, 즉 콘텐츠의 매력에 경쟁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한 정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작적 사고보다는 기존의 정보를 매력적으로 가공, 구성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능력이 중요함을 뜻한다.

(마) 또한 디지털 정보 처리 기술은 기업의 거래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문서 처리가 자동화되고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니터링된다. 기업 내부를 흐르는 정보는 마치 사람의 신경처럼 조직화된 망을 통해 유통되며 필요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제공된다. 이것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가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 신경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빌 게이츠의 마찰 없는 경제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혹은 마찰에 따른 갈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다른 거래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전자상거래는 수요자에게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전자상거래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생산자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 ③ 전자상거래는 거래 단계의 해체를 가져옴으로써 지리적 여건을 뛰어넘는다.
- ④ 디지털 정보 처리의 특성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해 준다.
- ⑤ 인터넷 경제는 정보의 창출보다 기존의 정보를 매력적으로 가공, 구성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능력에 더 의존한다.

57. (가)~(마) 중,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단락은?

— <보 기> —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는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 사이트를 선택하여 클릭함으로써 노출된다. 다시 말해, 인터넷의 정보는 개인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야만 전송되며,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은 쌍방향 매체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보내려면 일방적으로 밀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을 끌어당겨야만 한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58. ㉠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상품을 검색하여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을 파악한다.
- ② 상품 공급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 ③ 구매하려는 상품의 매출량, 소비자 선호도 등을 조사한다.
- ④ 인터넷 웹상에서 동호회를 조직하여 상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안티사이트를 방문하여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59. 위 글을 읽은 후, 탐구학습을 위한 수행과제를 정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정보를 매력적으로 가공,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② 경제의 발전 양상을 시대별로 조사해 보고 전통적인 경제의 특성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본다.
- ③ 정보화 시대에서 기술 표준을 장악하지 않고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해 본다.
- ④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 양상을 조사해 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 ⑤ 디지털 신경망 시스템을 확보한다면 마찰 없는 경제의 이상적인 모습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토의해 본다.

60. <보기>를 참고하여 ㉠의 개념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망외부성(網外部性)에 의한 가입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여 공정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 ①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디지털미디어의 확산에 의해 더욱 악화되는 것
- ②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영업이 가능해진 것
- ③ 가치에 대한 절대적 판단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장 광고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는 것
- ④ 어떤 상품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품이나 정보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
- 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구비되면 기업이나 개인 누구든지 항상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